

- 제 3 강 -

페미니즘/성정의

“언니들의 눈으로 본 기독교: 내가 생각하는 여성신학의 역할”

최 순 양 박사

이화여대 여성신학, 부정신학/인문학밴드 ‘대구와카레’ 회원

1. 여성신학

- ‘여성학’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관점에 ‘여성’을 추가(?)시키는 입장으로 발전.
- “인간이 누구인가?” + “여성은 누구인가?” +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 누구의 관점에서 성서를 해석해야 하는가?

2. ‘전통적으로’ 여성신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2.1. 초기 여성신학의 쟁점 - 신론, 기독교론

1) 메리 데일리(Mary Daly): 급진적 여성신학자 (분리주의자)

- 여성 해방운동은 기독교에 대한 철저한 대안 운동이어야 한다.
- “만약 하나님이 남자라면, 남자가 하나님이다.”
- 새로운 상징, 언어를 개발해야만 여성해방이 가능하다. (성차별적 구조를 반영하고 지속시키는 언어와 이미지의 제거)
-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

메리 데일리의 급진성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나 현재적 교회와 기독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2) 로즈마리 R 류터 (Rosemary R. Ruether): 통합(?)주의자 (온건개혁파)

- 남성 유일신 사상이 ‘하나님- 남자-여자’라는 서열을 고착화했다. (가부장적 위계질서)
- 초월-내재, 이성-감성, 영혼-육체, 남자-여자, 문화-원시(자연) 등의 이원론이 여성억압을 낳았다.
-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해방의 예언자적 성장구조, 억압받는 자와 함께 하는 것.
- 성서의 성역압적인 면 ↔ 가부장제를 거부하는 예언자적 전통과 페미니스트 예수.

보편적 영향력을 주었으나 부정적 측면을 고발, 개선하는 데 어떻게 기능했을까? (교회 비판적 능력)

3) 엘리자베스 S 피오렌자 (Elizabeth S. Fiorenza): 성서해석(교회적)

- 의심의 해석학: 성경은 가부장적, 성차별적 문화에 의해 잘못 쓰였고, 해석되어왔다. (그것을 고발, 의심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실에서 여성 해방적 요소를 발견해야 한다. (현실의 여성과 성서의 만남)

- 목회-신학적 패러다임으로 성서읽기 (목회적 현장에서 성서읽기) 여성경험이 우선성을 가진다. “돌이 아니라 빵을”

여성을 ‘이원론적’으로...

ex)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하갈’입장의 부재 → 탈식민 여성해방적 성서해석: ‘여성’들은 다 같은 입장이 아니다.

ex) 룯과 라합을 해석하는 방법 -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민족을 저버린? 여성들을 미화하는 것이 정당한가? (+ 여성의 입장에서 ‘신앙’이나 ‘민족’이냐를 이원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연 여성적인 목소리인가?)

3. ‘죄’이해 (죄론)

- 어거스틴: 죄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교만해 지거나 정욕에 빠지게 되는 것. // 여성신학: 죄를 불신앙, 교만, 정욕으로 보는 것은 ‘남성의 경험’이 반영된 것인지 여성의 경험은 아니다. / 죄가 교만으로 규정되면 여성들은 계속 목소리 없이 살아야 하며 죄론 자체(거꾸로 신앙담론, 신앙덕목자체 - 순종, 희생, 봉사)가 여성억압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 ‘죄’를 보편적으로 규정하는 ‘원죄론’을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교만함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가?

결국, 죄론이나 신앙담론을 분석할 때 역시 ‘어떤’ 인간을 말하는가? 누구의 관점에서 생각하느냐의 문제.

4. 여성신학의 인식론적 근거

- 계몽주의 이후, 근대이론이 제시한 인간, 이성, 역사에 대한 이해에 근거했다: ‘남성중심’에 대한 문제제기.

- 단일한 신학적 관점을 말하는 것이 가능했다: 여성해방, 발언권과 권리를 찾게 되는 여성 등등.

* 여성신학의 전제

- 일관된 주체, ‘자아’가 있다는 믿음 (근대적 자아)

- ‘여성’이 누구인 지, 여성의 억압이 무엇인 지, ‘서구’ ‘남성’ ‘이성’의 반대급부를 추구.

- 1세대 여성신학자들의 여성이해는 근대 이성주의를 따라왔다.
- 시몬느 드 보바르: <제2의성>
 - 주체로서의 남성과 타자로서의 여성.
 -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 남성과의 동등한 교육 기회 법적 평등성의 확보.
 - 차이보다는 남성과 여성이 공통으로 지니는 '공통성'에 대한 강조가 우선.
-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여성" -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여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 남성 하나님이 아닌 여성 하나님: 하나님의 '여성적' 측면, 삼위일체론 등등
- # 부정 신학적 -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닮은 말할 수 없는 인간.

5.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

- 고정 불변하는 인간의 본질 에 대한 회의: 보편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여성성" 이 존재하는가? 기독교 해방 전통을 찾으면 해방이 되는가?
- 탈식민지적, 포스트모던적(포스트 페미니즘) 학자들의 영향: '여성' 범위의 확장.

1)가야트리 스피박 (Gayatri C. Spivak)

Subaltern (서발턴)은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지식인과 권력자들의 언어망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들이 말하려 해도 들을 귀가 없다. (지식인들의 선입견과 재현 representation 행위로 인한 순장풍습: 여성들이 왜 죽어갔어야 했는지, 종교적 구원을 위해서였는지, 남성들을 위해 억지로 따랐는지, 그것을 알 길이 없다.)

2) 주디스 버틀러 (Judith Butler)

수행적 주체, 젠더의 수행성: 젠더 역시 여러 정체성처럼 (인종, 계급 등) 사회적으로, 담론적으로 결정된다. 섹슈얼리티만큼이나 젠더 역시 후천적이고 상황적이며 비밀관적이다. 성소수자와 여성의 교체관계 언어, 명칭, 담론 등이 우리를 '거기에 있도록' 호명한다. '원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원본'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을 해체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립시킬 수 있다.

3)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

페미니즘의 "유목적 주체"로의 확장: '주체'를 구성하는 계급, 인종, 젠더, 나이 등의 차이 등의 다양성이 작동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페미니즘적 여성주체를 상상해 내고자 하는 방식. 유목민이란 말 그대로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며, 목적지를 상정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미완료형이지만 능동 진행형)

6.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알 수 없는 인간 (신비적 하나님과 신비적 인간)

- 남성 하나님을 넘어서기 위해 대안적으로 상상해 왔던 '여성' 하나님의 한계?! (어떤 여성이며, 이성애적 여성인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기존의 '젠더'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만큼 '여성'을 '서발턴'을 소수자를 동성애자를 유목민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귀 기울이고, 상상하고 경계를 넘어서려는 용기와 저항과 능동성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은 '구도'와 '수행'의 과정이다.
- '정상'이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선입견을 내려놓고, 가치의 경계를 넘나들 때 따라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거꾸로' '역설적'원리

7. 한국적 상황에서 여성신학 생각해 보기

1) 세월호 참사가 가져다준 경험과 생각들

- 신정론: 모든 것을 해결 해 주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교회는 목사님들은 어떤 신앙적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가? 세월호 유가족 중의 한 어머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안산 분향소에서 광화문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 고통, 신정론의 문제 재정립
-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 '우는 자'가 누구인가?

2) 변화되는 여성들의 삶의 형태 (삶의 자리)

- 비혼 여성(결혼과 육아, 내조, 아내, 식탁 봉사 등등. 너무도 지극히 남성중심적 이성애주의적으로 가 득 찬 교회의 성역할), 동성애여성, 이주민여성, 장애인 여성
- 기본적인 여성의 인권, 평등성 등을 추구하는 것도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당파성', "아래로와 거꾸로"의 원리를 끊임없이 가동시켜야 한다.

3) 남성 중심적 (위계적) 교회 지도력 + 남성중심적 신학

- 지도자들에게 너무도 많은 권리와 힘이 가중되어 있는 체제 + 지도자들은 남성중심적 관점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도력의 패러다임 변화. (대안적 목회와 현실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시도)
- 보수적 신학뿐 아니라, 진보진영의 신학역시 여성 + 소수자, 약자의 문제에 깨어있지 않다.
- 여성신학의 문제의식이 '하나님 나라' 의 원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